

# 풍암동 주민들 “최고 기온 꼬리표 떼주오”

### 광주 최고 기온 매년 1위... “땅값 떨어진다” 하소연 지난해 기상관측소 월드컵경기장서 공원으로 옮겨 분지에 대기흐름 빠르지 않아 온도 안내려가고 그대로

광주지방기상청이 광주 도심에서 운영 중인 6곳의 기상관측소(AWS) 가운데 풍암동 관측소가 ‘매년 여름철 최고기온 광주지역 1위’를 도맡으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기상청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시멘트·철골구조물이 밀집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된 탓에 여름마다 확고부동한 폭염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풍암동 땅값이 떨어진다”는 항의와 하소연이다.

그러나 광주일보 취재결과, 지난해말 기상청이 주민 민원을 수용, 풍암동 관측소를 인근 공원으로 옮긴 뒤 올 여름 역시 풍암동이 ‘광주지역 최고기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상·환경 전문가도 일관되게 “도심 온도 상승 억제 를 위해선 녹지 확충과 수변공간 보호가 관건으로 주민 관심도 여기에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녹지 및 수변공간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해 풍암동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광주월드컵경기장 인근인 풍암동 423-2번지에 설치돼있는 ‘풍암동 관측소(AWS·자동기상관측장비)’를 풍암생활체육공원(풍암동 20번지) 내로 옮겼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주 관측소(고도 62m)와 조선대 관측소(108m), 무등산 관측소(912m), 서구 풍암동 관측소(63m), 광주과학기술원 관측소(32m), 광산구 용곡동 관측소(30m) 등 6곳에서 기상관측을 하고 있다. 풍암동 관측소의 경우 지난 2009년 설

치된 이후 여름철이면 이곳의 기온이 광주 내 다른 관측소보다 높게 관측돼 주변의 대표 관측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주민들에게서 제기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위치를 공원으로 옮긴 뒤 올 들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16일~19일 풍암동 관측소 최고기온은 운암동 관측소보다 1.4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풍암동 관측소를 생활체육공원 내로 옮기면서 최고기온이 약 1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이 빗나갔다”며 “현재 풍암동 관측소가 있는 생활체육공원은 주변에 대형 건물이 바람을 가로막고 있던 월드컵경기장 인근보다 녹지도 많고 큰 건물도 적지만 여전히 풍암동의 기온이 제일 높게 관측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풍암동의 경우 분지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기의 흐름도 빠르지 않아 실제로 온도가 높게 측정된다. 그리고 도심 온도의 경우 녹지와 하천이 어떻게 형성

## 시멘트 함량 미달 불량레미콘 300억 납품

### 제조업체 대표·임원 등 적발

시멘트 함량이 모자란 불량레미콘 300억 원어치를 납품해 온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와 임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규격 미달 레미콘을 납품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특정법상 사기)로 전남지역 레미콘 제조업체 회장 장모(7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레미콘 배합 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임원 민모(48)씨와 규격 미달 레미콘 생산을 지시한 임원 정모(48)씨 등 임직원 5명도 함께 구속했다. 또, 불량레미콘을 공사 현장에 납품한 품질관리 담당 직원 2명과 4개 법인은 행사 입건 조치했다.

장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들과 약정한 배합 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20%가량 줄여 제조한 레미콘 306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남 순천, 보성, 장흥 등에 있는 공장 4곳에서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을 생산, 각각 50억~170억 원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품질 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허위 기재한 배합설계표나 변조된 자동생산기록지를 건설사들에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등은 또, 허위서류를 제출해 관급공사 현장 3곳에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회삿돈 60억 빼돌린 조경업체 대표·임원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조경업체 대표 A(64)씨와 임원 B(56)·C(5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업체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7년간 인건비와 거래대금 등을 부풀려 모두 59억6875만원

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 A씨는 10억5300만원을 횡령했으며 B씨는 18억9000만원, C씨는 8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4명도 수억원을 빼돌렸지만, 횡령액이 임원들보다 적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는가 하면 아파트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새벽일 나가던 70대 치어 숨지게한 뺑소니범 검거

이른 아침 공사 현장으로 향하던 7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광주 6월 19일 자 6번> 20대 뺑소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에서는 20일 승용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박모(24)씨를 긴급체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6시에 광주 광산구 한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몰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A(78)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주택 건설 공사장에 가려고 이른

시간부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차량 후사경이 부서지는 충격에도 도주한 뒤 친구에게 차를 맡겨놓고 재직 중인 전남의 한 회사로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 “졸음운전을 하다 차량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3시간 30분 만에 회사에 있던 박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읍주운전 여부, 도주 배경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일 오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 시민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광주는 Cool! 우리는 Call!'을 함께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는 COOL(쿨) 우리는 CALL(콜)’...온도 1도 낮추기 시동

전국 대도시 가운데 여름철 기온이 가장 높은 광주시가 온도 1도 낮추기에 나섰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시민선포식(선전대회를 열고 온도 1도 낮추기의 필요성과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민 원탁회의 의견 수렴, 전문

가와 교수의 검토 등을 거쳐왔다.

프로젝트의 비전은 ‘시민과 더불어 시원한 녹색 도시 광주 만들기’, 슬로건은 ‘광주는 COOL(쿨) 우리는 CALL(콜)’로 정했다.

목표로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 ▲민관협력의 새로운 그린 거버넌스 모델 제시 등을 삼았다. 구체적 실행을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녹색 더하기 ▲회색 줄이기 ▲마을 나누기 ▲희망 키우기를 설정했다. 이중 녹색 더하기는 녹지와 수변공간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폭염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회색 줄이기는 자동차배출가스, 음식물 쓰레기, 건물 인공폐열 감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한다. 마을 나누기는 자치구, 공동 주택단지, 마을 등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폭염관리체계 구축, 폭염 취약지역과

계층 관리 등을 한다. 희망 키우기는 광주 지역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역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LED 조명보급 확산 등 광주의 새로운 먹거리사업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10대 시민 행동수칙으로 ▲안 쓰는 플러그 뽑기 ▲가까운 거리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분리 배출하기 ▲녹색 식탁 만들기 ▲물 절약 생활화하기 ▲1인 1나무 심고 가꾸기를 추진한다. /채희종기자 chae@

#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 대형 모텔, 회사 사정상 매매.



##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6월20일 오픈예정
- 동업 하실분 환영!
- 연 순수익 3억정도 가능
- 연수원, 수련원 등 기타시설 이용 가능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4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용자 8-10억 가능, 법인체 인수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